

# 가정학의 재정립을 위한 워크샵보고 : 아시아 지역

윤복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생활학과 교수

## 1. 워크샵의 개최배경

이 워크샵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후원을 받은 태국의 여성협회(Foundation for Woman) 주최로 1992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5일간 방콕의 Sukhothai Thanathirat 개방대학에서 개최되었다<sup>1)</sup>. 워크샵의 주목적은 영세농가 특히 농촌여성의 필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지침을 개발하는데 있다.

워크샵에는 주최국인 태국 외에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등 모두 9개국에서 19명이 참석하였는데 반수 이상이 가정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학자들이며 나머지는 여성학자, 지역개발관련 전문가들과 직업교육 전공자 등이었다.

본 워크샵은 가정학이야말로 인류복지와 미시적 사회단위인 가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분야로 특히 빈곤계층과 소외계층의 생활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한편,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가시적이며 실천적 행동과정을 통해 전문분야로서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위에서 전개되었다. 본 워크샵에서는 빈곤·소외계층으로 영세농가와 농촌 여성의 생활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이는 아시아의 여러나라가 공업지향의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소외된 농업과 농촌의 낙후성이 심각하

게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부장권 문화 속에서 성적차별에 따른 이중고에 직면한 농촌여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워크샵을 통해 기대되는 구체적인 결과는 첫째, 영세농가 특히 농촌 여성의 생활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응용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둘째, 농촌가정생활지도(Home Economics Extension)<sup>2)</sup>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연관관계의 개발 셋째, 영세농가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지식체계를 형성하는 가정학의 주제영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워크샵은 각 주제에 따라 토의, 발표, 요약의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 2. 아시아의 농촌가정, 여성, 가정학의 상황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농촌가정 및 여성과 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지식과 기술의 원천이 되는 가정학의 현재 상황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먼저 논의되었다.

중요한 지표들의 통계치 비교를 통해 아시아의 대부분의 농촌가정은 낮은 농업소득과 이에 따른 빈곤, 높은 인구 증가율, 소작 영세농의 증가, 저임금, 여성노동시간의 증가, 영농의 영세화로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들은 성적 차별에 따른 정치적 소외와,

<sup>1)</sup> 이 보고는 각국의 "농촌현황과 가정학의 역할"에 관한 보고와 5일간의 토의를 중심으로 내려진 결과를 토대로 했다.

<sup>2)</sup> 우리나라의 대학은 지도(Extension)의 기능이 대체로 미약하며 가정대학도 마찬가지여서 가정학의 연구내용이 가정생활향상에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기관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에서 유일하게 농가생활향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예측적 지위, 사회구조적 폭력, 직업시장에서의 낮은 지위, 여성노동력 수출, 국제적 섹스산업, 낮은 교육수준, 가정내 폭력 등의 열등한 상황에 놓여 있

었다. 농촌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그림 1) 과 같이 요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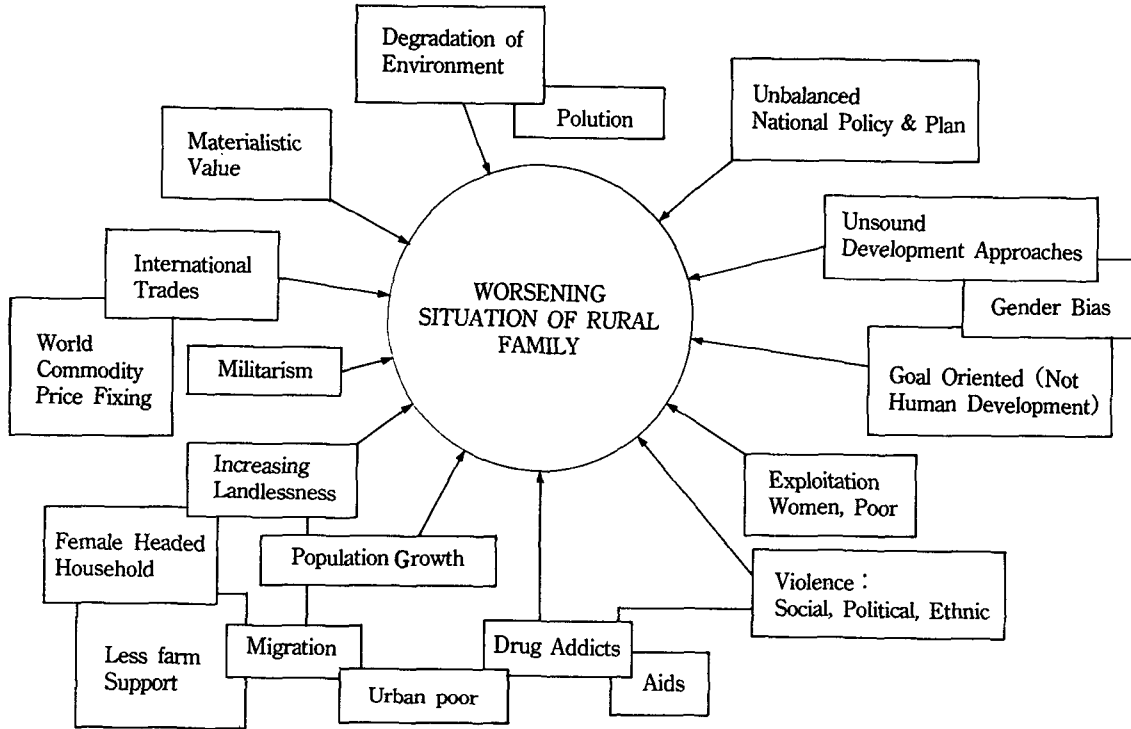


Figure 1. Worsening situation of rural family

가정학은 가정생활에 관계된 주제들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있기 보다는 분화된 주제들이 평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문제해결보다는 지식의 내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전문분야로써 독자성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촌지역개발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는 하향식 접근방법으로 경험을 나누기 보다는 정보를 제공하며, 자극을 주어 촉진시키기 보다는 가르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영세농가를 향상시킬 잠재력은 있으나 실천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농촌가정 생활지도 분야는 가정학내에서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어 아직 농촌가정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도 거의 없으며, 농업과 농촌 그리고 가정생활을 적절하게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기관과의 연계 역시 취약한 형편이다.

전문가로서 가정학자들은 국가차원의 계획이나 중요한 정책결정에 가시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농촌현장에서의 과제 수행을 회피하며, 농촌가정을 지도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 3. 연구의 우선순위 과제선정

참석자들은 주최측에서 워크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시한 농촌가정의 욕구충족에 근거한 4가지 질문에 의거하여 분임토의를 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12개의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그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분야로써 가정학의 역할 (2) 영세농가에 관한 자료확보 (3) 현실적인 삶의 질 측정치 개발 (4) 프로그램의 수행과정 연구 (5) 성공적 프로그램 연구 (6) 연구결과의 효과적 전파방

법 (7) 연구결과의 성공적 활용방법 (8) 참여연구 및 질적 연구기술 개발 (9) 학제적인 접근방법 (10) 가족상호작용과 역동성 연구 (11) 이론적 모델의 실천적 적용 (12) 가정학 전공자의 농촌개발 영역에의 취업문제

#### 4. 농촌가정 생활지도 프로그램과 전략

농촌가정 생활지도 프로그램은 정부기관과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조직된 민간기관에 의해 계획되는데 기존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관련기관간의 연계활동 부족, 통합적 접근 결여, 제한된 자원, 부적절한 기초자료, 현장지도 회피, 생활지도사에 대한 적절한 훈련 및 관리부족, 사후평가 및 조정과정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 첫째, 가정학 전공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농촌 현장 경험실습을 시켜 농촌가정 생활지도사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의되었으며 둘째, 농촌가정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는 가정학에서 소홀

히 다루어진 농촌가정 생활지도분야에 관한 학내적 합의, 농촌개발 관련기관과 여성단체와의 연계, 세미나와 워크샷을 통해 강화가 필요한 세부적 영역 분석 등의 전략이 논의되었다. 셋째, 농촌가정 생활지도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성 생활지도사에게 훈련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높여 주고, 농촌가정 생활지도사에게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킬 수 있는 다른 훈련 기관과의 연계확립 등 17개 전략이 설정되었다.

#### 5. 가정학의 개념적 체계화

가정학이 영세농가 및 농촌여성들의 욕구충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정학을 통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학을 올바르게 개념화하기 위해서 주최측은 세가지 유용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각 모델을 검토하여 '가정학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의 재개념화' (Reconceptualization of Home Economics Instruction and Research program)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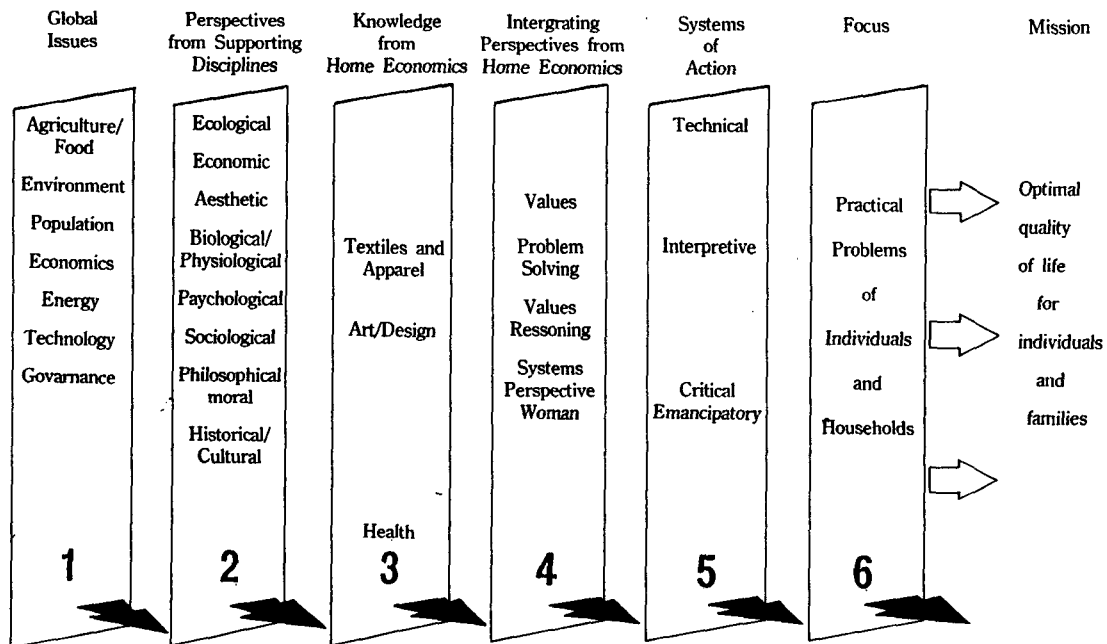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reconceptualization of Home Economics research and curriculum

선정된 모델은 토의를 통하여 삭제, 수정, 첨가 보완되어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그림 2). 이 개념적 체계화 모델에서 가정학의 연구영역은 가족 연구, 인간발달, 주거, 식품과 영양, 자원관리와 소비자 연구, 건강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연구영역은 인간발달과 관리, 여성 그리고 세계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인간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기술적, 해석적, 비판적 행동과정을 통해 실천성 있게 개인과 가정의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에게 최적의 질적인 삶을 제공하는 학문으로 개념이 체계화되었다.

## 6. 맺음말

가정학 재정립에 관한 워크샷을 통해 농촌가정과 농촌여성의 필요에 부응하는 우선순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농촌가정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가정학의 개념적 체계화가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개략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외에도 가정학자, 여성학자, 지역개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농촌가정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며, 농촌개발에 있어 전문분야로써 가정학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적용범위를 인식할 수 있었고, 특히 가정학에 필요한 변화의 방향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가정학이 실천적으로 적용되어 농촌가정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가정 생활지도 분야가 가정학내에서 거의 도외시되어 있어 학문적 연구와 현장지도가 괴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워크샷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가정학의 재정립과 농촌개발에 대한 가정학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워크샷이 우리나라에서도 개최되기를 희망한다.